

고분 축조기법으로 보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성격*

정인태**

〈목 차〉

- I. 머리말
- II. 고분 분포와 조사 현황
- III. 축조기법 분류와 유형 설정
- IV.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성격
- V. 맺음말

국문요약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고분 축조기법에는 위계성, 시간성, 공간성을 보여 주는 것이 있고, 그 중 위계성을 보여 주는 속성 조합을 통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4기로 나누어 고분군 축조 성격을 검토하였다.

1기는 5세기 중반에 해당하며 고분군의 축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경사가 급한 지대에 입지하며, 매장주체부의 한쪽 단벽을 입구 공간으로 하고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봉토분이 축조된다. 2기는 고분의 규모, 출토 유물을 볼 때 최고 위계를 보이는 고분이 축조되는 시기이다. 입구부에 돌출된 수혈을 설치하거나 대형 판석을 세워 쌓는 새로운 축조기법이 확인된다. 3기는 기존 축조기법에 신라적인 요소가 부가되고 적석목곽묘가 출현하는 등 신라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4기가 되면 횡혈식석실분을 마지막으로 대형 봉토분의 축조가 중단된다.

* 본고는 2015년 창녕군과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의 발표문 중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정인태, 『창녕지역 고분 축조기법 검토』, 『계성고분군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낙동강 동안에 접한 지리적 위치와 광개토대왕 남정의 영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성되지만 독특한 축조기법으로 고분을 축조하였다. 또 신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왜와의 교류도 확인되고 있어 고분군 축조집단은 신라와 왜의 교류에 매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대외관계를 통해 유력 집단으로 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창녕, 봉토분, 축조기법, 교류

I. 머리말

창녕은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 진변조(弁辰條)에 전하는 ‘불사국(不斯國)’, 『일본서기(日本書記)』 신공기(神功記) 49년의 기록에는 가야 7국의 하나인 ‘비자발(比自炆)’,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비지국(比只國)’, ‘비자화(比自火)’, ‘비사벌(比斯伐)’,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5가야의 하나인 ‘비화(比火)’ 등으로 기록되어있으며, ‘빛’ 또는 ‘빛 딸’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창녕지역은 3세기 당시에는 진한에 소속한 일국이었으나, 3세기말 또는 4세기 어느 시점에서 가야영역으로 들어오다 하주(下州)가 설치된 진흥왕 16년(555년)를 전후로 신라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또한 지리적으로 신라지역과 가야지역의 접경지역인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면서 양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성장한 곳으로 현재까지 고고학적 조사·연구 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화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새로운 조사방법과 시각으로 중요 봉토분의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계단식제토법으로 고분 축조기술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Ⅲ군 6·7호분을 시작으로 1,500년 전의 순장소녀 ‘송현이’가 출토된 Ⅲ군 10호분, 은제허리띠와 장식이 완형으로 출토된 Ⅱ군 16호묘²⁾가 각각 발굴되었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매장주체부 조사와 다량의 중요유물이 반출된 Ⅰ군 7호분의 재발굴과 Ⅱ군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초대형분인 39호분 및 주변고분에 대한 발굴이 이어지는 등 고대 창녕의 매장례와 정치·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다수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주요 봉토분의 축조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분군의 성격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외, 『비사벌 - 창녕 송현동고분군 특별전 도록』, 2010.

2) 본고의 고분번호는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12년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 부여한 번호를 따랐다. 봉토가 있는 것은 ‘분’으로 봉토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묘’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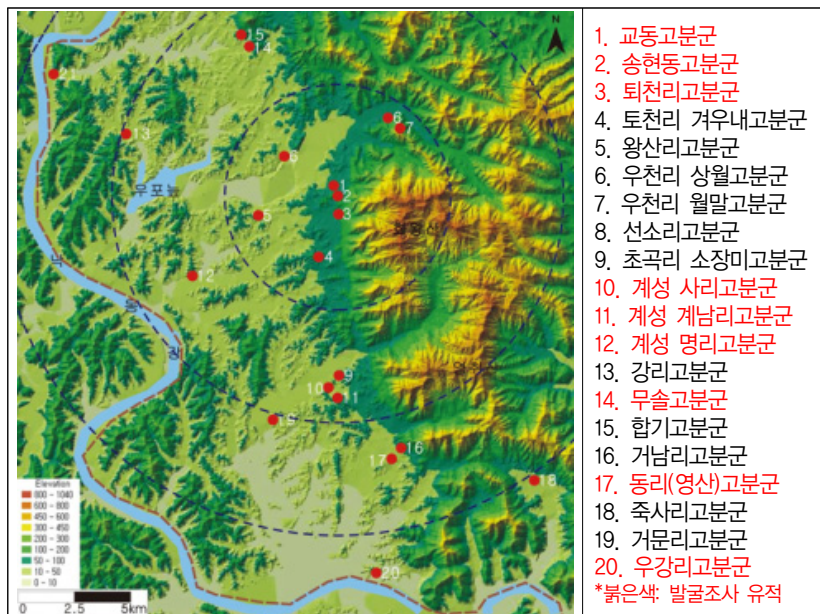
우리文化財研究院,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종합학술연구보고서』, 2014a.

II. 고분 분포와 조사 현황

창녕지역에는 삼국시대 고분, 가마터, 산성, 통일신라시대 불교유적 및 조선시대 향교, 석빙고 등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봉토분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예전부터 ‘제2의 신라’로 불려지고 있다.

창녕에는 현재까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약 20개소의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창녕읍 일대의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사적 제514호), 창녕읍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계성면 일대의 사리고분군, 명리고분군, 계남리고분군을 포함하는 계성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3호) 및 영산면 동리고분군, 죽사리고분군을 포함하는 영산 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168호) 등이 대표적이며, 각 고분군 내에서도 여러 군집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도면 1)

이 중 창녕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다.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 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까지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456,998㎡이다. 1963년, 목마산(해발 463m)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교동고분군이 사적 80호로, 화왕산(해발 757m)의 서쪽 사면 5~6부 능선 및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는 송현동고분군이 사적 81호로 각각 지정되어 관리되다가, 2011년에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514호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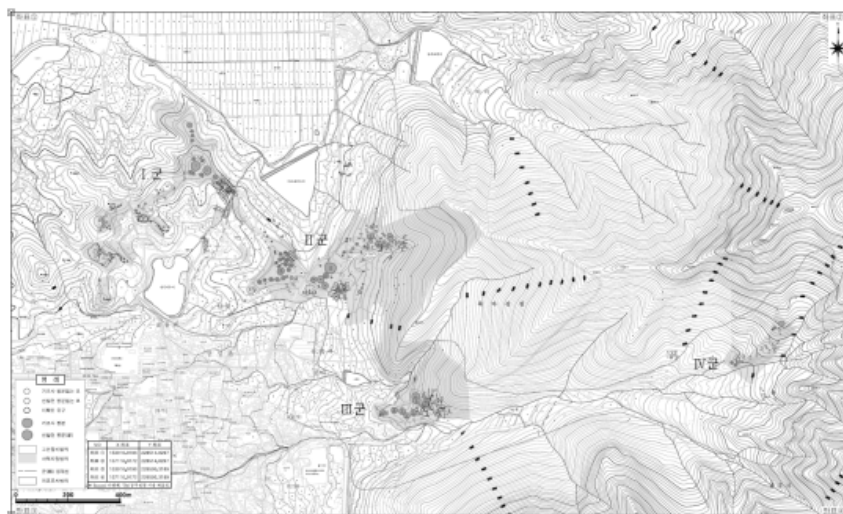


도면 1. 창녕지역 삼국시대 고분유적 분포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b)

2011~12년에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봉토가 남아 있는 고분 101기와 봉토가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은 고분 116기 등 총 217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⁷⁾

일제강점기와 2000년대 초반 지표조사에서 작성된 분포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흔적을 알 수 없는 고분 80여 기와 2014년부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Ⅱ군 3호분 북동편의 미정비구역 발굴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고분 20여 기 등을 합하면, 고분군이 조성될 당시에는 320여 기 이상의 크고 작은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다시 4개의 군집으로 나뉘는데 가장 동쪽의 I 군에서부터, 현재 창녕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Ⅱ군, 사적 통합 이전 송현동고분군으로 명명되었던 Ⅲ군, 화왕산의 서쪽 사면부 해발 360~44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IV군으로 나눌 수 있다.(도면 2) 이 중 봉토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I~Ⅲ군이다.



도면 2.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분 분포도(우리문화재연구원 2014a)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조사는 크게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기는 일제강점기로, 1917년 이마니시류의 교동고분군 현황조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18년부터 1931년에 걸쳐 7·21·31·89호분 등 I 군과 Ⅱ군의 주요 고분이 하마다고사쿠, 우메하라스에지, 야쓰이세이치, 고이즈미아키호 등에 의해 조

³⁷⁾ 우리文化財研究院, 『昌寧 校洞과 松峴洞古墳群-第1群 7號墳 및 周邊古墳』, 2014b.

사되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세상에 처음 소개되는 의미가 있으나, ‘조사’라는 명분하에 실상은 최소한의 그리드나 독도 설치하지 않고 봉토를 파고 석실 내부로 들어가 유물을 꺼내는 도굴에 가까웠으며, 우메하라 스에지의 회고에 따르면 마차 20대, 화차 2대 분량의 엄청난 양의 유물이 반출되었다고 한다.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식 조사보고서가 거의 없고, 조사 내용의 일부만 논문, 회고록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석실 벽면이나 개석, 유물 출토양상을 간략히 실측한 도면과 봉분의 단면, 석실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사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전경이나 작업 광경을 찍은 사진이 유리건판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1918~19년 야쓰이세이치 등이 발굴한 II군 7호분의 경우, 거의 100여 년이 지난 2011~12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재발굴하여 봉토 축조기법 및 고분 구조 등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2기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해방 이후 우리 손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이 이루어져 묘제, 출토유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시기이다. 1992년 II군의 1~5호분이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60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 조사를 통해 한쪽 단벽부에 매장관 관련된 공간이 드러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횡구식 묘제와는 차이가 있는 독특한 구조가 처음 확인되었다.

표 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조사 현황

조사년도	조사명	조사기관	보고서·관련자료
1917	교동고분군 분포·현황조사	조선총독부 (今西龍)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 古蹟調査報告』
1918	교동 21·31호분(舊) 조사	조선총독부 (浜田耕作, 梅原未治)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
1918~19	교동 5~8·10~12·89·91호분(舊) 조사(9기)	조선총독부 (谷井濟一)	穴澤啄光, 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調査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1931	교동 116·117호분(舊) 조사	조선총독부 (小泉顯夫)	小泉顯夫, 1932, 『古墳發掘漫談』, 『朝鮮』第205號
1992	교동 1~5호분(舊) 발굴조사	동아대학교박물관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昌寧校洞古墳群』
2000	송현동고분군 정밀지표조사	경남문화재연구원	慶南文化財研究院, 2000, 『昌寧 松峴洞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4) 梅原未治, 『考古學六十年』, 平凡社, 1973.

조사년도	조사명	조사기관	보고서·관련자료
2002~04	송현동 2~7호분(舊) 시굴조사	경남문화재연구원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昌寧 松峴洞古墳群 -2~5호분 시굴조사 및 6·7호분 발굴조사』
2003~04	교동·송현동고분군 정밀지표조사	경남문화재연구원	慶南文化財研究院, 2004, 『昌寧 校洞·松峴洞古墳群 精密地表調査結果報告』
2004	교동고분군(창녕문화공원 조성부지내 발굴조사)	경남문화재연구원	慶南文化財研究院, 2007, 『昌寧 校里 遺蹟』
2004~06	송현동 6·7호분(舊) 발굴조사	국립창원 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분군 I-6·7호분 발굴조사보고』
2006~08	송현동 15~17호분(舊) 발굴조사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창녕 송현동고분군 II-15~17호분 발굴조사보고』
2009~10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군 16호묘 발굴조사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창녕 교동고분군 주차장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
2011~12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정밀 지표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우리文化財研究院, 2014,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종합학술연구보고서』
2011~12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군 1·5~9·12호분 발굴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우리文化財研究院, 2014, 『昌寧 校洞과 松峴洞古墳群-第1群 7號貢 및 周邊古墳』
2011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군 17~33호묘(27기)	삼강문화재연구원	三江文化財研究院, 2013, 『昌寧 校洞 新羅墓群 - 창녕박물관 증축부지내 유적 시·발굴조사』
2013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군 13·14호분·24~27호묘·29~42호묘 발굴조사(20기)	우리문화재연구원	우리文化財研究院, 2015, 『昌寧 校洞과 松峴洞古墳群2 -第1群 收拾調査區間』
2013~14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군 9호묘(舊 88호분) 발굴조사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창녕 교동 8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2014~19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군 39호분 및 주변고분 발굴조사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창녕 교동 39호분 및 주변고분 발굴조사 II 지구 현장설명회자료』
2015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III군 1-1·8호분 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7,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 III군 1-1호분·8호분』

3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로 III군 발굴을 시작으로 많은 봉토분이 본격적으로 발굴되었고, 특히 다양한 조사방법에 의해 고분 축조기법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었다. 2004년 당시 송현동고분군으로 불리던 III군의 6·7호분을 시작으로 10~12호분까지 대형 봉토분 5기가 발굴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먼저

만든 고분의 봉분에 덧붙여 쌓은 연접 축조 방식이 발굴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또 6·7호분의 발굴조사는 봉토를 계단식으로 제토하여 축조과정과 기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매장주체부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 고분 조사 방식을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Ⅲ군의 능선 경사면에 위치한 1-1호분과 8호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에는 Ⅱ군의 16호묘, I군 7호분과 1·8·12호분 등 주변 봉토분과 Ⅱ군에서 가장 큰 10호분(구 89호분)에 인접하여 조성된 9호묘(구 88호분), Ⅱ군 동편의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한 39호분과 주변 봉토분의 발굴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직경 30m가 넘는 7호분 조사에서는 봉토 내 배수시설, 제방상 성토기법, 점토블럭 등 다양한 성토재료, 달구질 흔적 등 기존 조사에서 잘 확인되지 않았던 고분 축조기술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다른 가야고분군에 비해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유력계층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20m 전후의 봉토분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축조집단의 성격과 가야와 신라의 관계를 파악할 수 물질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발굴조사가 실시된 봉토분인 I군의 1호분, 7호분, 13호분, 14호분과 Ⅱ군의 1~5호분, 9호묘(구 교동 88호분), 16호묘(구 교동 주차장부지고분), 39호분(조사 중), Ⅲ군의 6·7호분, 10호분(구 송현동 15호분) 등을 중심으로 축조기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⁵⁾

Ⅲ. 축조기법 분류와 유형 설정

1. 공정별 축조기법의 특징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다수의 봉토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고분의 축조공정과 공정별 특징, 고분군 조영의 특징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봉토분 축조는 당시 토목기술 및 매장의례의 산물로서 축조공정을 우선 파악한 후 각

⁵⁾ 축조공정별 축조기법의 특징 및 주요 봉토분 축조기법 분류(표2)에 각 고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어, 개별 고분의 설명은 생략한다. 또 본문에 언급되는 고분 축조기법 관련 조사내용은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개별 각주도 생략하였다.

공정별 특징을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에 따른 주요 속성은 입지(묘역 선정), 묘광 굴착, 지면 정지, 매장주체부 축조, 매장의례, 호석(또는 주구) 설치, 성토재, 구획성토 여부와 구획재, 밀봉부와 밀봉재, 성토기법 등이 있다. 또 매장주체부 축조는 다시 관-곽 구성, 벽석 축조기법, 평면·단면 형태, 매장공간 구성 등의 세부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봉토분 축조공정은 일반적으로 “묘역선정 → 묘역정지 / 묘광 굴착 → 매장주체부 축조 / 하부 봉토 성토 / 호석(주구) 설치 → 시신(부장품) 안치 / 매장주체부 복개·밀봉 → 상부 봉토 축조 → 피복·완성”으로 확인된다.⁶⁾

1) 묘역 선정·정지

묘역 선정은 고분군 내에서 고분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간적 속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무덤 주인공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선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조사 성과를 보면 발굴조사가 되지 않은 IV군을 제외하고 II군 → I군 → III군으로 묘역이 변화하면서 고분군이 조영되었다. 각 군내에서도 개별 고분의 묘역 변화에 일정한 패턴이 관찰된다.

가장 먼저 조성된 II군에서는 ‘3호분 → 1호분 → 9·16호묘’로 조성되고 있어 화왕산 기슭에서 능선 말단부로 즉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분의 분포를 볼 때 주능선 상에는 39호분-1·3호분-10호분-22호분이 있고 그 주변 능선 및 사면부에 보다 작은 중소형 봉토분이 위치하고 있다. 주능선 상에 입지하는 고분은 사면부에 위치하는 것보다 위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1·3호분은 약간 시기차는 있지만 규모가 비슷한 대형 봉토분 2기가 나란히 조성되고 있다. 22호분의 남쪽으로는 15~20호분 등 규모가 비슷한 봉토분이 열상으로 분포하는 모습도 관찰된다.(도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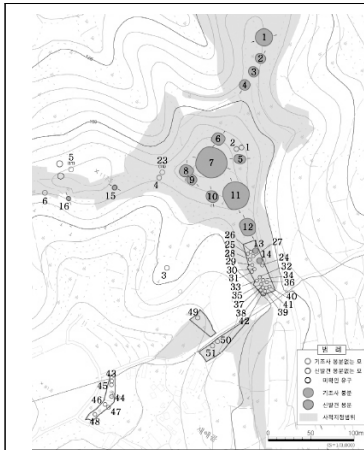
반면 I군은 II군에서 남서쪽으로 뺀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에 7호분이 입지하고 그 주변으로 10m 내외의 봉토분이 둘러싸는 형태이다. 또 7호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동쪽으로 뺀 가지 능선의 말단부에는 각각 1호분과 12호분이 위치한다.

I군 내의 고분 입지의 변화는 7호분 → 12호분 → 1호분으로 추정된다.(도면 3) III군은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볼 때, II군과는 반대로 지대가 가장 낮은 서쪽의 1호분에서부터 지대가 높은 동쪽의 6·7호분, 10·11호분으로 묘역이 이동되며,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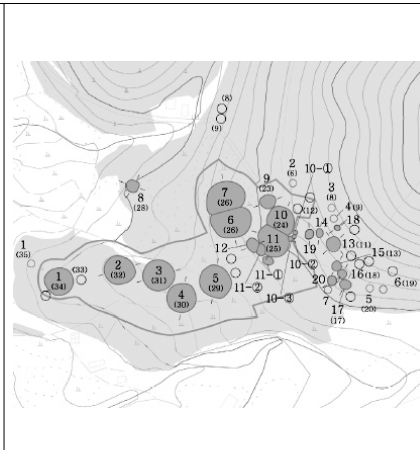
⁶⁾ 화살표로 표시된 것은 공정 선후관계가 확실한 것이고, ‘/’는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하부봉토와 상부봉토의 구분은 개석 상면을 기준으로 한다.

군과는 달리 봉토 규모가 비슷한 고분이 열상으로 축조되는 점이 특징이다.(도면 4)

고분의 위치가 선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고분을 조성하는데 먼저 고분이 만들어질 곳의 지면을 고르고 편평하게 하는 등 묘역을 정지하고, 묘광을 굴착하는 단계이다.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I군 7호분은 정상부를 일부 깎아 낮은 곳에 성토하였다. 묘광은 매장주체부 상단이 지표 위에 위치하도록 굴착하여 반지하식



도면 3. I군 고분 분포도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도면 4. III군 고분 분포도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도면 5. II군 고분 분포도(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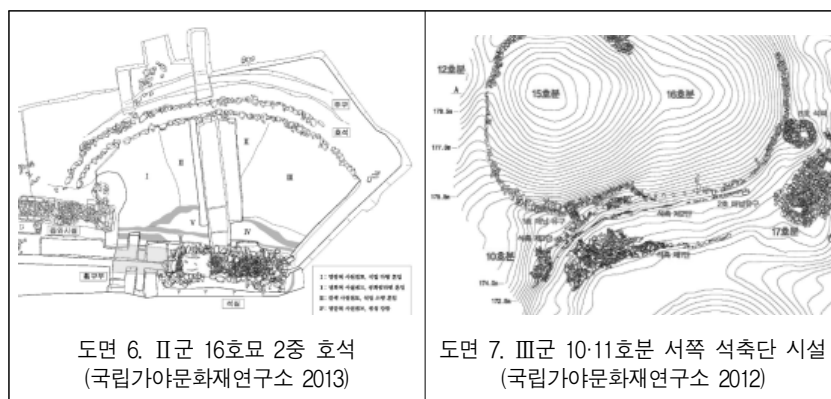
이 되게 하였다. Ⅱ군의 1·3호분과 Ⅲ군의 6·7·10호분은 매장주체부의 장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지대의 고저 차가 심한데, 묘광이 위치할 곳의 경사면을 단면 ‘L’자상으로 굴착하여 경사가 낮은 곳에 쌓거나, 흑갈색 점질토를 깔아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후 매장주체부를 쌓기 위해 미리 조성된 정지면을 다시 굴착하여 장방형의 묘광을 만든다. 이 때 한쪽 장벽은 거의 지상에 축조되는 반면, 반대편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2) 매장주체부·하부봉토·호석(주구) 축조

고분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매장주체부의 축조는 하부 봉토를 쌓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I 군 7호분은 주변부를 먼저 쌓고 외연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며, Ⅱ·Ⅲ군의 경사면에 위치한 대부분의 봉토분은 지형이 낮은 곳은 수평 상 또는 안에서 밖으로 경사지게 쌓아 올리고, 반대로 지형이 높은 곳은 밖에서 안으로 경사지게 쌓는다. 이 단계에는 묘역 정지 또는 묘광을 굴착할 때 생긴 풍화암 반토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퇴적토를 주로 사용하며 공간을 구획하기 보다는 지형과 매장주체부의 구조, 위치에 적합한 방법으로 성토한다.

하부 봉토 축조와 함께 고분 가장자리에는 호석을 쌓고, 일부 고분에서는 호석 밖으로 주구를 굴착하기도 한다. 호석은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고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물로 영남지역에서는 경주, 대구, 경산, 울산, 양산 등 신라권역과 고려, 합천 등 가야권역 및 부산, 창원, 성주 등 신라와 가야의 접경지에 분포하는 봉토분에서 확인된다. 대체로 할석을 이용하여 외면을 맞추어 석축렬을 조성하는데, 규모가 큰 고분의 경우 뒤쪽을 돌로 채우기도 한다.

Ⅱ군 16호묘, Ⅲ군 10호분(구 15호분)에서는 경사가 높은 쪽으로 2단으로 호석을 만들고, (도면 6) Ⅱ군 16호묘, Ⅲ군 6호분에서는 역시 지형이 높은 곳에만



도면 6. Ⅱ군 16호묘 2중 호석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도면 7. Ⅲ군 10·11호분 서쪽 석축단 시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주구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II군 39호분에서 2단 호석 렬이, 3호분 주변의 여러 고분에서는 눈썹형의 주구가 조사되고 있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봉분을 쌓을 때 또는 축조 이후에 빗물 등에 의한 붕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또 II군 1·4호분, 16호묘, 39호분 등 호석 외면에 접하거나 주구 안에 기대, 대호 등이 매납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고분 축조를 완료한 뒤 제사를 지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한편 III군 10호분과 11호분의 서쪽에 3개의 석축단이 축조되었는데, 급경사에 따른 붕토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축대로 묘역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면 7)

표 2. 주요 봉토분 축조기법 분류

(단위: m)

고분명	봉분직경	매장주체부				단면형태	벽석축조	시신안치방향	두향	입구부		부장공간	바닥시설		구획방법
		길이	폭	장폭비	깊이					축조순서(개석수)	평면형태(범위)		형태	재료	
II-3호분	25	7.2	1.3	5.5:1	2.2	장방형	횡평적	↘	남	폐→복(9)	세장방형(~호석)	5	전면	할석	목주석렬 점토피
II-1호분	22.5	7.1	1.2	5.9:1	1.4	장방형	횡평적	↘	남동	폐→복(8)	장방형	5	시신부	할석	점토피
II-4호분	12	5.1	1.1	4.6:1	1.7	장방형	횡·중평적	↘	서	폐→복(9)	말각방형	4	두축부 제외	할석	점토피
II-16호묘	(19)	6.5	1.4	4.7:1	1.7	장방형	횡평적	↘	동	복→폐? (9)	나팔형(?)	5	시신부	할석	점토피
II-9호묘	17.6	6.7	1.3	5.2:1	2	제형	횡평적	↘	남	복→폐	나팔형(~호석)	5	축하부 제외	할석	석렬?
I-7호분	31.2	9.0	1.7	5.3:1	1.8	제형	횡평적	↘	남	복→폐	말각방형	5	?	?	석렬, 교차
III-6호분	21.7	8.5	1.6	5.3:1	2.6	제형	중평적	↘	남	복→폐(8)	나팔형	5	두축입 구부 제외	할석	석렬, 교차
III-7호분	20	8.4	1.8	4.7:1	2.6	제형	중평적	↘	남	복→폐	나팔형	5	두축입 구부 제외	할석	석렬, 교차
III-10호분	22.4	8.5	1.7	5:1	2.2	제형	중평적	↘	남	복→폐	나팔형	4	?	?	석렬, 교차
I-12호분	18.5	3.6	1.5	2.4:1	0.8	제형	목곽	↓	?	-	-	4	축축순 장부 제외	천석	교차
I-1호분	17.1	2.9	2.5	1.2:1	2	궁륭형	중평적	→	?	중앙연도	-	?	전면	천석, 판석	교차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하나의 봉분에 하나의 매장주체부가 있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부곽이나 순장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동일한 양상은 함안 말이산고분군이 있다. 반면 창녕지역의 또 다른 대규모 고분군인 계성고분군의 계남리 1~4호분에서 주곽과 나란히 배치되는 부곽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와 적석목곽묘인 I군 12호분(도면 9), 횡혈식석실묘인 I군 1호분(도면 10)도 축조된다. 매장주체부 벽면은 초기에는 대체로 돌의 좁은 면을 보이게 하여 눕혀쌓는 세로눕혀쌓기(횡평적)를 주로 사용하여 단면형태가 수직이 되게 쌓아 올리다가, 돌의 넓은 면이 보이게 하는 가로눕혀쌓기(중평적)로 단면형태가 사다리꼴이 되게 천정으로 갈수록 들어쌓는 방식으로 변화한다.⁷⁾ 한편 일제강점기 조사한 II군 10호분(구 89호분), 15호분(구 116호분)은 대형의 장방형 석재를 세워 쌓은 모습이 유리건판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을 비롯해 대구, 구미, 김천 등과 일본 구주지역에도 유사한 축조기법이 보이고 있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II군의 39호분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봉토가 남아 있지 않는 소형 무덤으로 I군의 서쪽과 II군의 북쪽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사 중인 II군 3호분 주변의 미정비구역 조사에서 봉분을 가진 이른 시기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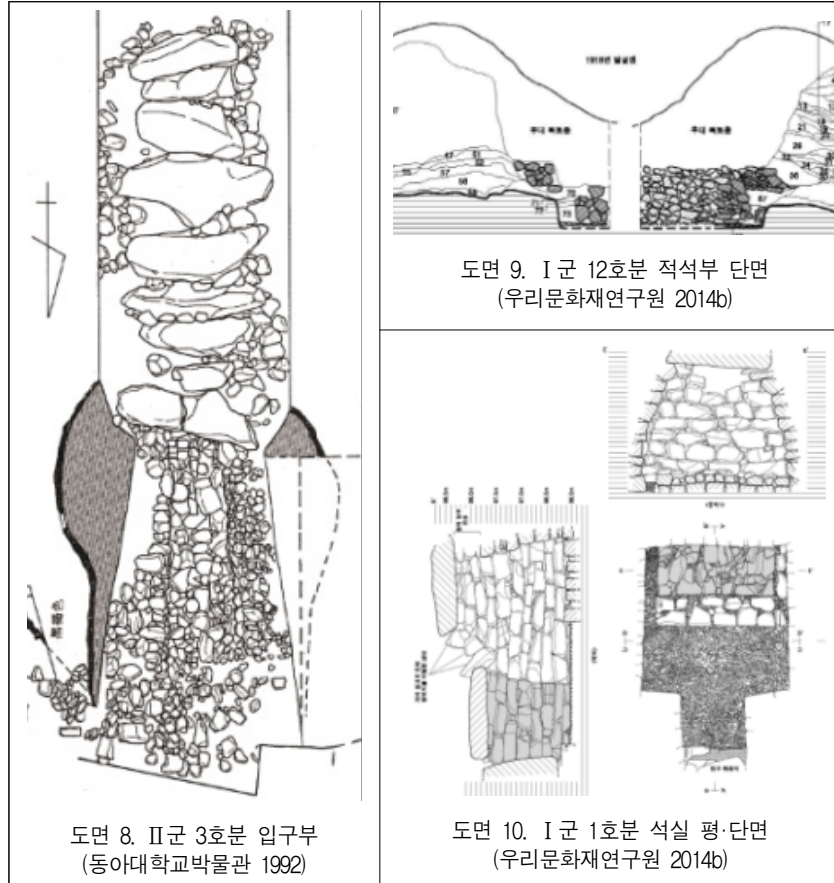
횡구식석실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5세기부터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봉토분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한쪽 단벽 쪽으로 장벽을 짧게 또는 길게 내어 묘도를 만들고, 시신 안치와 부장품 매장이 끝난 후 입구쪽 단벽(또는 폐쇄부)을 쌓아 만든 형태가 있고, 6세기 중반 이후부터 7세기까지 소형 봉토를 가지거나 봉토가 남아 있지 않는 무덤으로, 평면 장방형을 띠고 묘도는 전면 또는 한쪽 벽에 치우쳐 조성되는 형태가 있다. 전자의 경우 후자의 일반적인 횡구식석실묘와는 달라 이를 ‘수혈계횡구식석실묘’로 보는 견해⁸⁾, 추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어 ‘수혈식석곽묘’로 보는 견해⁹⁾, 수혈식과 횡구식의 절충형

7) 홍보식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석곽 축조는 처음에 벽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렸으나, 봉분의 하중압을 극복하기 위해 바닥 너비보다 상단 너비를 줄여 쌓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홍보식, 『영남지역 세장방형 石蓋竪穴式石槨의 석재와 축조 기술』, 『韓國考古學報 第99輯』, 2016.

8) 박광춘, 『가야 묘제의 연구』, 『嶺南考古學 26號』, 嶺南考古學會, 2000.

9) 심현철, 『묘제로 살펴본 비사벌의 성격 검토』, 『비사벌 가야에서 신라로 심포지움 자료집』, 국립김해박물관·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도면 8. II군 3호분 입구부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도면 9. I군 12호분 적석부 단면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b)

도면 10. I군 1호분 석실 평·단면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b)

인 ‘횡구식석곽묘’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하다.¹⁰⁾

세장방형의 횡구식석실묘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봉토분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는 주 묘제로 I~III군 모두 나타나지만 세부적인 형태와 구조는 차이가 있다. 가장 먼저 축조된 3호분(도면 8)은 양 장벽을 호석까지 길게 축조하여 횡구식 석실묘의 전형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입구부¹¹⁾를 이용하여 매장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낮다. 축조양상을 볼 때 입구쪽 단벽은 하단부를 나머지 세 벽과 함께 쌓은 후 상단부 약 0.9m 높이를 별도로 쌓았는데 개석을 덮은 상태에서는 입구부 공간의 높이가 낮아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기 어렵다. 매장주체부 벽면에 일정 간격으로 나무기둥이 설치되고 바닥에도 횡으로 나무를 놓은 흔적

10) 김용성, 『창녕지역의 신라고총과 그 의의』, 『신라사학보』22, 신라사학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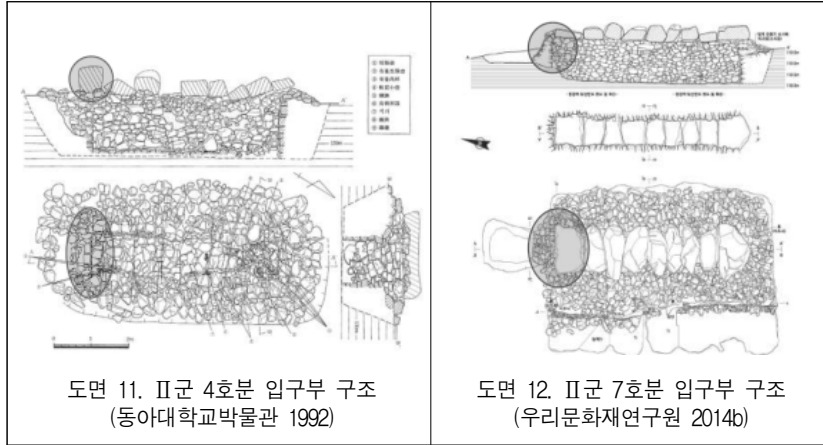
11) 횡구식석실묘이 ‘횡구부’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횡구식 구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고에서는 ‘입구부’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 개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한 시설로 본다면 당초에는 개석을 모두 올린 뒤 입구부로의 매장 행위를 기획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구 폐쇄석을 개석이 덮고 있어 복개 이전에 매장과 폐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조성되는 4호분과 1호분은 3호분과 달리 입구부 공간이 호석까지 조성되지 않으며 개석과 폐쇄석의 위치(도면 11)를 볼 때, 3호분과 마찬가지로 매장 → 입구부 폐쇄 → 복개 순서로 진행되었음이 추정된다.

능선 아래쪽의 사면에 위치한 9호묘와 16호묘는 입구쪽 장벽을 폐쇄부보다 약간 내어 쌓고, 입구부에서 호석까지 또는 호석 전까지 공간(기존 묘도부)의 벽과 바닥을 점토괴나 점토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입구부 단벽은 1·3호분과 달리 전면을 나중에 쌓았는데 개석의 위치 등을 볼 때 복개 / 매장 → 입구부 폐쇄의 순서로 추정된다. 9호묘는 3호분처럼 입구부 공간이 호석까지 연결된다. 이상 II군의 입구부는 구조가 다양하여 정형성이 없는 모습이다. 시신과 부장품 안치방향은 사선방향으로, 입구부를 이용하여 매장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I군의 7·8·13·14호분은 II군과 같은 경사면이 아닌 비교적 평탄한 능선 상에 입지하는데 지형적 요인에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방형의 묘곽에는 세 벽만 조성되고 입구 쪽 단벽부는 평면 말각방형의 수혈을 굴착한 형태가 확인된다. 이 수혈은 매장주체부 바닥까지 굴착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수혈의 단면은 'U'형이며 수혈의 벽과 바닥에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으나, 7호분의 경우 3쌍의 개와 기러기가 폐쇄부 바깥의 수혈 바닥에 매납되어 있다. 매장 행위 후 제사의 흔적으로 보인다. 입구부 단벽 쪽 개석이 세 벽에만 걸쳐 있고, 폐쇄석이 개석 측면을 덮고 있어 복개 / 매장 → 입구부 폐쇄로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도면 12) 최근 조사된 III군의 8호분의 입구부 형태가 I군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III군의 6·7·10·12호분은 양 장벽을 입구부쪽으로 길게 내어 쌓았는데, 평면 나팔형으로 벌어지면서 2m 길이로 조성하였다. 7호분의 경우 한쪽 벽은 묘역 조성 시 'L'자로 굴착된 암반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입구부 단벽은 하단 1/2 가량(6·7호분) 또는 하단과 측벽 일부(10호분)를 세 벽과 함께 조성하고 매장 후 나머지 공간을 폐쇄하였다. I군과 같이 복개 / 매장 → 입구부 폐쇄로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평면 세장방형의 횡구식석실묘는 추가장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횡구식 묘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입구부 공간은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지형적인 요건을 고려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장주체부 내 매장공간 구성은 대체로 ‘두측부-시신부-족측부-순장부-입구부’로 구성된다. II군 4호분, III군 10호분의 경우 족측부가 없는 4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에는 작은 할석 또는 판석을 놓는데, 전면에 조성되는 경우(II군 3호분)도 있지만 대체로 시신 안치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II군 9호묘의 경우, 순장자 공간에 긴 할석을 이용하여 바닥을 시설한 점이 특이하다.

주피장자의 두향은 대체로 남쪽으로 하고 있어 북(동)쪽의 계성·영산고분군과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고령, 김해, 함안 등 다른 가야지역과 같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도 순장문화가 확인된다. 주로 매장주체부 내에 무덤 주인공의 발치에 순장자가 안치되며 함안과 유사하다. 산성화로 인해 인골이 남아 있지 않거나 도굴로 인해 훼손된 경우가 많아 매장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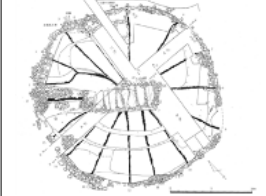






사진 1. III군 10호분 순장인골 ‘송현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으나, 대체로 주피장자의 발치에 나란한 방향으로 2명의 순장자가 매장된 양상이 보인다. 6세기 전후가 되면 주피장자의 발치에서 직교된 예가 Ⅲ군 10호분에서 확인되었다. 4구의 순장인골 중 가장 양호한 상태의 인골을 고고학, 형질인류학, 법의학, 유전학, 물리학 등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송현이’로 재탄생한바 있는데, 이 인골은 키 153.5cm의 16세 여성으로 중독 또는 질식사시켜 바로 순장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분석을 통해 평소 쌀, 보리, 콩, 육류 등을 주로 섭취하였고, 빈혈도 있었음이 밝혀졌다.¹²⁾(사진 1)

3) 복개·상부봉토 축조·피복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매장주체부는 모두 개석을 덮고 있으며 계성고분군과 같은 목개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석은 모두 8~9매로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개석 상부로 대부분 얇은 점토를 이용하여 밀봉하는데, I군 7호분은 개석 위에 점토를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또 그 위에 초분류를 깔았으며, Ⅲ군의 봉토분은 개석 상부에 석재를 깔고 그 위에 점토를 바른 형태를 보인다.(사진 2)

		
<p>사진 2. Ⅲ군 10호분 밀봉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p>	<p>도면 13. Ⅱ군 1호분 점토피열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p>	<p>사진 3. I군 7호분 배수시설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b)</p>
		
<p>사진 4. I군 7호분 점토블럭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b)</p>	<p>사진 5. Ⅲ군 6호분 구획표지석 및 교차성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p>	<p>사진 6. I군 7호분 피복토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b)</p>

¹²⁾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500해 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2009.

매장주체부 조성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봉분을 쌓아 올린다. II군은 구획 경계에 점토피를 놓고 호석 바깥으로 목주를 박아 공간을 구획하여 축조한다.(도면 13) I군의 7호분은 다양한 축조기법이 확인되는데 고분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뻗은 석렬은 양쪽으로 흙둑이 조성되어 있어 배수용도로 보고되었으며, 이 석렬을 경계로 성토의 기준이 되는 구획의 기능도 병행하였다고 추정된다. 또 봉분 외연을 제방상으로 쌓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경사지게 쌓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성토의 재료로 흙과 함께 점토블럭(사진 4)이 사용되었다. III군은 구획의 경계에 구획표지석, 석렬을 놓고 흙을 교대로 쌓는 교차성토 방식을 주로 이용하여 봉분을 조성하였다.(사진 5)

한편 대부분 고분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봉분을 마무리하는 완성 단계의 흔적이 I군 7호분과 III군 10호분에서 확인되었는데, 점토를 사용하여 봉분 외연을 마감한 양상(피복토)이 확인되었다.(사진 6)

2. 고분 유형 설정

이상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봉토분 축조공정에 따른 축조기법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축조기법 속성은 고분의 위계성, 시간성, 공간성(지형적 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봉분과 매장주체부 규모, 묘역 선정, 매장형태는 위계성을 보여 주며, 매장주체부 구조(묘제)와 시신안치 방법, 매장주체부의 벽면 축조와 단면형태, 입구부 축조순서, 성토방법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또 지형적 요인에 따른 속성은 입구부 평면형태, 구획 및 성토방법이 있다.

이 중 위계성을 기준으로 검토 대상 고분을 3개의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I 유형>II유형>III유형’으로 위계를 보인다.(표 3)

표 3. 고분 유형 및 시기(‘)’는 추정)

시기 \ 유형	I 유형	II유형	III유형
1기(5세기 중반)	-	II-3호분, II-1호분	II-4호분, II-2호분
2기(5세기 후반)	I-7호분, (II-10호분), (II-39호분)	-	II-9호묘, II-16호묘 I-8호분, I-13호분
3기(6세기 전반)	-	III-6호분, III-7호분, III-10호분, I-12호분	III-8호분
4기(6세기 중반 이후)	-	II-1호분	-

I 유형은 직경 30m 전후의 초대형 봉토를 가지며, I 군 7호분은 매장주체부 길이 9m로 현재까지 고분군 내 가장 큰 규모를 보인다. 또 구릉 정상부에 입지하며 주변에 작은 봉토분이 둘러싸고 있어 입지면에서도 가장 탁월하다. 일제강점기 조사한 II군 11호분과 현재 조사 중인 II군 39호분도 30m 전후로 역시 고분 입지에서도 주변 고분보다 우월하여 I 유형으로 추정된다. 부장공간은 ‘두측부-시신부-족측부-순장부-입구부’ 등 5공간으로 추정되고 입구부 공간에 개와 기러기를 3쌍 매납하는 등 호석에 연접하여 토기를 정치하는 일반적인 매장의례와 차이를 보인다.

II유형은 횡혈식석실묘인 I 군 1호분을 제외하면 직경 18~22m 전후의 중대형 봉토를 가지며, 매장주체부는 7~8m의 길이를 가진다. 능선 상에 위치하며 묘역 선정에서 대체로 인근에 크기가 유사한 봉토분이 조성되거나 연접하여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부장공간은 적석목곽묘로 추정되는 I 군 12호분을 제외하고 4~5공간으로 구성된다. 바닥시설은 할석을 이용하여 전면 또는 주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III유형은 봉분 직경이 18m 이하이며, 대체로 10~12m를 가지는 것이 많다. III유형은 앞의 두 유형과 달리 능선 상이 아닌 경사면에 위치하며, 주위에 더 큰 봉토분이 입지하고 있다. 부장공간은 4~5공간으로 구성된다.

한편 매장주체부 구조는 한쪽 단벽을 입구 공간으로 갖고 추가장을 하지 않는 독특한 횡구식석실묘에서 3기가 되면 적석목곽묘, 4기의 횡혈식석실묘가 나타난다. 또 매장주체부 단면형태가 장방형에서 제형 또는 궁륭형으로 변화하는데 매장주체부도 점차 지상화되어 조성된다. 시신안치 방법도 묘제와 함께 변화한다. 횡구식석실의 입구부 축조는 단벽을 폐쇄한 뒤 복개하다가 복개한 뒤 폐쇄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봉토 축조 시 구획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대체로 점토띠를 활용하는 것에서 하부에 석렬(또는 표지석)을 상부는 교차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변화한다.

또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 경사가 심한 곳에 입지하는 II군 3호분, II군 1호분, II군 9호묘 등은 장벽을 길게 빼거나 별도의 입구부 벽면을 조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II군의 경우 입구부의 평면형태 세장방형에서 나팔형으로 변화하는 시간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반면 I 군의 봉토분은 대체로 능선 상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어 성토방법에서도 외연을 제방상으로 성토한 후 안을 채우고 있어, 경사면 하단부는 수평으로 쌓고 상단은 외연에서 중심부로 내경하여 쌓는 II·III군과 차이가 있다.

IV.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성격

1. 고분군 축조 개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5세기 중반경 목마산의 동쪽 기슭의 II군 1~5호분과 주변지역에서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I~IV군으로 확대하여 갔다.

현재까지 이 고분군에서 가장 빠른 봉토분인 II군 3호분은 직경 25m의 대형분으로 양 장벽을 호석까지 길게 내어 입구부 공간을 만들어 매장 행위를 하며, 추가장을 하지 않는 이 세장방형의 횡구식석실묘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분 축조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아직까지 주변에 이 보다 이른 시기의 목곽묘나 봉토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남쪽으로 약 3km 떨어져 4세기대 생산유적인 여초리 토기가마터가 있어 고분군 주변으로 재지 집단이 활동했을 가능성은 높다.

한편 고분군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계성고분군이 위치하는데 250여 기의 크고 작은 봉토분이 분포하는 창녕지역의 또 다른 대규모 고분군이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보다 이른 5세기 전반경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만들어진 주·부곽식 구조이다. 매장주체부의 장폭비가 1.8~2.5:1로 장방형을 띠고, 벽면은 목곽과 석곽이 함께 조성되었으며 석개가 아닌 목개를 하고 있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봉토분과는 확연한 축조기법의 차이를 보여 준다.

계성고분군 인근에 위치하는 영산 동리고분군의 4세기대 목곽묘의 존재, 계성고분군 내 봉토분이 목곽에서 석곽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양상이 보이는 점에서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은 4세기부터 계성과 영산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자형금동관, 편원어미형행엽 등 신라계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낙동강 서안에 접하고 있는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계성고분군과 유사한 묘제와 함께 창녕양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또 옥전 M1호분에서는 편원어미형 행엽과 로만 글라스 등 신라계 유물을 부장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은 신라와 가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⁵⁾

15) 홍보식은 합천 옥전 M1·M2호분, 고령 지산동 73분이 목개 석곽의 구조임을 들어 계성고분군 집단이 대가야 수장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진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보식, 『고고자료로 본 계성고분군의 역사·문화적 가치』, 『계성고분군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

반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매장주체부 장폭비가 4.6~5.9:1로 세장하며, 한쪽 단벽으로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후 폐쇄하는 독특한 매장방식을 보이며, 석개를 하고 있어 계성고분군과 다른 축조기법을 보여 준다. 따라서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축조집단은 계성고분군 축조집단과 다르며, 인근에 있지만 축조기법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¹⁴⁾

그러나 계성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개이단투창고배, 장경호, 기대, 파수부완 등 소위 창녕양식토기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같은 문화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녕양식토기는 5세기 중반 이후 합천 옥전고분군, 함안 오곡리유적, 부산 가달고분군, 김해 안양리고분군 등 서부 경남과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확산된다.¹⁵⁾

비슷한 시기에 축조집단이 다른 고분군이 함께 존재했던 것은 왜일까? 먼저 창녕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봐야 한다. 낙동강의 동안에 접해있는 창녕은 고령, 합천, 함안과 맞닿아 있다. 또 신라의 중심인 경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북으로 대구, 동으로는 청도, 밀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신라문화의 유입도 용이하다. 창녕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봐도 최초 진한 12국 중 하나인 ‘불사국(不斯國)’에서 가야 소국의 하나인 ‘비자벌(比自伐)’, ‘비사벌(比斯伐)’ 또는 ‘비화(比火)’로 기록되어 있는 등 신라와 가야를 오가는 복잡한 역사를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창녕지역은 신라와 가야 소국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은 신라와 가야(다라국 또는 대가야)의 교류 매개체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축조집단은 신라와 왜의 교류 매개체¹⁶⁾로 각각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⁷⁾

14) 다만 순장풍습은 계성고분군과 교동·송현동고분군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창녕지역 뿐만 아니라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 다른 가야 소국과 황남대총 등 경주지역의 5세기대 봉토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순장풍습은 가야·신라 일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었던 장례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 하승철, 『고고자료를 통해 본 창녕 계성고분군의 위상』, 『창녕 계성고분군 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계성고분군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2012, 45~46쪽.

16) 이 이유는 IV-2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17) 김혁중은 가치제(금공품, 갑주류, 무기류)를 두고 두 집단 간에 서로 경쟁적인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있듯 고분군을 경쟁적인 교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김혁중, 『유물로 살펴본 창녕지역의 교류·교섭에 대한 검토』, 『비사벌 가야에서 신라로 심포지움 자료집』, 국립김해박물관·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40쪽.

2. 고분 축조의 전개 양상

Ⅱ군 3호분 축조 이후 많은 봉토분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표 3과 같이 위계성을 보이는 속성 검토를 통해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이를 4기로 나누어 시간적 변화에 따른 고분 축조기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기는 5세기 중반에 해당하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축조 시작 시점이다. Ⅱ유형인 Ⅲ군 3호분, Ⅲ군 1호분은 능선 상에, Ⅲ유형인 Ⅱ군 4호분과 Ⅱ군 2호분은 사면부에 각각 축조되었다. 출토유물을 볼 때 이후 시기보다 갑주, 투구, 철모 등 무기류가 다수 부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3호분에서 출토된 대금계 판갑이 주목되는데, 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¹⁸⁾

2기는 5세기 후반에 해당하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축조집단의 최고 전성기라 할 수 있다. Ⅱ군에서는 1기에 이어 서쪽으로 연결되면서 주능선과 사면부로 확대 축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형 판석을 세워 쌓는 구조의 초대형 봉토분 2기가 축조되는데, Ⅱ군 최동단의 가장 고지에 조성된 39호분, Ⅱ군의 중앙 평탄면에 조성된 10호분이 그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39호분 발굴조사에 따라 판석조 석곽(실)의 구조와 축조기법이 새롭게 밝혀질 예정이다.

2기부터 또 다른 군집인 I군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초대형분인 I군 7호분이 가장 먼저 축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Ⅱ군의 두 고분과 함께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최고 지배자의 고분으로 판단된다. Ⅱ군 경사면에 조성된 고분과 시신안치방향 및 한쪽 단벽을 폐쇄하는 것은 비슷하나, 입구부가 돌출된 수혈과 같이 짧아지며 하단부는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7호분은 봉토내 배수시설, 매장주체부 주변의 석축열, 점토미장, 봉토 다짐기술, 제방상 성토기법 등 다양한 축조기법이 확인되어 고분군 축조집단의 정점의 토목기술을 보여주는 고분이라 할 수 있다.

I군 7호분 주변의 경사면에는 10m 전후의 8호분과 능선 아래쪽 경사면에는 봉분이 많이 유실되었지만 일제강점기 분포도에 표시되어 있었던 13호분과 14호분 등 3유형의 소형분도 확인된다. 13·14호분도 7호분과 같은 돌출된 수혈을 입구부로 가지고 있어 공통점이 확인된다.

한편 2기의 고분에서는 최전성기를 말해주는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모두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었으나 최근 I군 7호분의 일부 유물은 재보고된 바 있다.¹⁹⁾

주요 유물로는 I군 7호분의 청동초두, 청동합, 청동제각배, 금동관편 등이

18) 김혁중, 위의 책, 2015, 38쪽.

19) 국립김해박물관, 『昌寧 校洞 7號墳』, 2015.

있고, II군 10호분에서는 은제조형관식편, 백회수피제관모편, 은제조패장식, 금동제식리, 녹각제장식철검, 사행상철기 등 화려한 위세품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러한 위세품은 경주 이외에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²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위상을 짐작케한다.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신라계 유물에 대한 비중이 높으나, 1기에서 확인된 대금계관갑에 이어 II군 10호분에서 출토되는 녹각제장식철검은 왜와, 원두대도는 백제와의 교류를 시사하는 부장품이다.

한편 장신구, 마구류 등 금속유물에서 신라 중심지에서 제작된 것과 다른 요소가 확인되는데 이 지역에서 신라산 물품을 모방해서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이른 시기부터 조영되는 계성고분군이 신라산 물품을 그대로 부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3기가 되면 III군의 축조가 개시된다. 봉분 형태에 있어 신라의 대표적인 묘형인 표형분이 채택된다. 고분의 입지는 I·II군과는 달리 규모가 비슷한 대형분이 열상으로 분포하며 능선 말단부에서 정상부까지 선형으로 묘역이 확장되고 있다. 봉분 성토기법은 구획석렬 또는 표지석을 두고 이질토를 교차성토하는 기법이 주류를 이룬다.

매장주체부는 이전 단계의 횡구식석실이 지속되는데, 점차 지상화하면서 단면형태는 사다리꼴을 띤다. 입구부는 II군의 후기 고분에서 보이는 평면 나팔상을 띠며 좀 더 정형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개석 상부에는 다량의 천석을 이용하여 두텁게 적석한 후 점토를 발라 매장주체부를 밀봉하고 있어, 표형분과 함께 신라적인 요소가 고분 축조기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에서는 녹나무 목관을 비롯, 금동관, 금동투조안고, 봉상철기, 국자 등이 출토되고 토기를 바구니에 담아 부장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매장의례와 부장품이 확인된다. 또 15호분의 경우, 앞 시기 고분의 순장이 주피장자와 나란하게 매장되는 것과 달리 주피장자 발치에서 직교되어 매장된 순장자가 4명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앞 시기에 이어 신라계 위신재가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토기 형태와 문양에서도 신라적인 요소가 더 많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녹나무제 목관과 이모가이 고동으로 제작한 반구형 운주 등 왜계 유물 부장도 늘어난다.(사진 7-8) 녹나무제 목관은 배를 목관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류의 직접적인 증거가

²⁰⁾ 홍보식, 『고고유물을 통해 본 창녕 정치체의 성격』, 『고대 창녕지역사의 재조명 - 제2회 고대 창녕지역사 학술대회자료집』, 2011, 43쪽.

된다. 또 황남대총 등 신라의 중심지에서도 이모가이 고동제품이 출토되고 있다. 이를 볼 때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축조집단은 신라와 왜의 교류에 매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대외관계를 통해 유력 집단으로 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한편, 교동고분군에서는 직경 18m 규모의 교동 12호분이 신라의 중심묘제인 적석목곽분으로 축조되는 점이 주목된다. 매장주체부의 장폭비가 2.4:1로 횡구식석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며 적석부와 함몰부의 존재에서 새로운 묘제가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7. Ⅲ군 6호분 녹나무제 목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사진 8. Ⅲ군 7호분 패제운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I 군 12호분은 무덤 그 자체가 도입된 듯한 인상을 주며 고분 형태의 모방, 축조기술 정보의 습득이 아닌, 신라에서 직접 이주한 사람 내지는 집단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4기는 횡혈식석실분인 I 군 1호분이 조성되는 시기이다. 수혈식 또는 횡구식의 전통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나 봉분 규모가 17m에 달해 고분군 내 유력자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I군의 동쪽과 II군의 남쪽의 능선 경사면에는 길이 4m 이하의 횡구식석실묘가 밀집 분포한다. 이 고분은 앞 시기의 횡구식과 달리 추가장이 확인되고 평면 장방형을 가지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21) 계성리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06년 조사)에서 확인된 마한계 주거지와 왜계 토기, 계성고분군과 옥전고분군의 묘제 간 유사성 등을 근거로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이 낙동강 중·하류와 교류를 주도했을 것으로 보았다.

하승철, 『창녕 계성고분군의 성격과 정치체의 변동』, 『야외고고학』 제18호, 2013.

이 시기는 555년 하주 설치, 561년 진흥왕척경비 건립 등 이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볼 때 신라에 복속된 시기로, 창녕지역 최고 유력 재지집단인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축조가 I 군 1호분을 끝으로 중단됨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계성고분군에서는 직경 15m 전후의 중대형 봉토를 가진 황구식석실묘가 등장하는데 유사 판축법에 의한 이질토 수직분할 양상도 보인다. 또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수하식 태환이식과 세환이식, 대간명 토기 등이 출토되는 점은 유력 봉토분이 급감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과 대비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봉토분의 공정별 축조기법 검토를 통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축조 성격을 살펴보았다.

축조기법에는 위계성, 시간성, 공간성을 보여 주는 것이 있고, 그 중 위계성을 보여 주는 속성 조합을 통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4기로 나누어 고분군 축조 성격을 검토하였다.

1기는 5세기 중반에 해당하며 고분군의 축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경사가 급한 지대에 입지하며, 매장주체부의 한쪽 단벽을 입구 공간으로 하고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봉토분이 축조된다. 2기는 고분의 규모, 출토유물을 볼 때 최고 위계를 보이는 고분이 축조되는 시기이다. 입구부에 돌출된 수혈을 설치하거나 대형 판석을 세워 쌓는 새로운 축조기법이 확인된다. 3기는 기존 축조기법에 신라적인 요소가 부가되고 적석목곽묘가 출현하는 등 신라의 영향력이 증가하다 4기가 되면 횡혈식석실분을 마지막으로 대형 봉토분의 축조가 중단된다.

낙동강 동안에 접한 지리적 위치와 광개토대왕 남정의 영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성되지만 독특한 축조기법으로 고분을 축조하였다. 또 신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왜와의 교류도 확인되고 있어 고분군 축조집단은 신라와 왜의 교류에 매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대외관계를 통해 유력 집단으로 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신라에 복속되면서 봉토분 축조는 중단된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지배집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대형 봉토분이 다수 발굴되어 다양한 물질자료가 확보되었다. 이 자료는 문헌자료가 부족한 가야의 실체와 가야-신라-왜 등 한반도 안팎의 문화교류 양상을 복원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한국 고대사 규명과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투고일 2018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30일 ■

참고문헌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Ⅲ군 1-1호분·8호분』, 2017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 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2009
- _____, 『비사벌 - 창녕 송현동고분군 특별전 도록』, 2010
- _____, 『창녕 송현동고분군 I -6·7호분 발굴조사보고-』, 2011
- _____, 『창녕 송현동고분군Ⅱ -15~17호분 발굴조사보고-』, 2012a
- _____, 『가야고분 축조기법 I』, 2012b
- _____, 『창녕 교동고분군 배수로정비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13
- _____, 『창녕 교동 8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2015a
- _____, 『창녕 교동 39호분 및 주변고분 발굴조사 II지구 현장설명회자료』, 2015b
- 김용성, 「창녕지역의 신라고총과 그 의의」, 『신라사학보』22, 신라사학회, 2011
- 김혁중, 「유물로 살펴본 창녕지역의 교류·교섭에 대한 검토」, 『비사벌 가야에서 신라로 심포지움 자료집』, 국립김해박물관·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 東亞大學校博物館, 『昌寧校洞古墳群』, 1992.
- 박광춘, 「가야 묘제의 연구」, 『嶺南考古學 26號』, 嶺南考古學會, 2000
- 박천수, 「考古資料로 본 가야시기의 昌寧地方」, 『가야시기 창녕지방의 역사·고고학적 성격』,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 심현철, 「묘제로 살펴본 비사벌의 성격 검토」, 『비사벌 가야에서 신라로 심포지움 자료집』, 국립김해박물관·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 우리文化財研究院, 『昌寧 桂城里 遺蹟』, 2008
- _____,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종합학술연구보고서』, 2014a
- _____,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제1군 7호분 및 주변 고분』, 2014b
- _____, 『昌寧 校洞과 松峴洞古墳群2 -第1群 收拾調査區間』, 2015
- 이한상, 「金工品으로 본 5~6世紀 昌寧地域의 政治的 動向」,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창녕군·경북대학교, 2009

- 정인태, 『창녕지역 고분 축조기법 검토』, 『계성고분군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
- 하승철, 『고고자료를 통해 본 창녕 계성고분군의 위상』, 『창녕 계성고분군 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계성고분군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 _____, 『창녕 계성고분군의 성격과 정치체의 변동』, 『야외고고학』제18호, 2013
- 홍보식, 『고고유물을 통해 본 창녕 정치체의 성격』, 『고대 창녕지역사의 재조명 - 제2회 고대 창녕지역사 학술대회자료집』, 2011
- _____, 『고고자료로 본 계성고분군의 역사·문화적 가치』, 『계성고분군의 학술적 가치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
- _____, 『영남지역 세장방형 石蓋豎穴式石槨의 석재와 축조 기술』, 『韓國考古學報 第99輯』, 2016
- 梅原末治, 『考古學六十年』, 平凡社, 1973

Abstract

The character of Gyo-dong and Songhyun-dong tombs in Changnyeong

In-tae, Jung

Gyo-dong and Songhyun-dong tombs are the central tombs of the Changnyeong area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mbs can be seen through of distribution, survey status, the construction of mound tomb and excavated remains.

The construction of the mound tomb is classified into four period. I · II-period used stone outer coffin tomb with decorator entrance and stone chamber stomb with horizontal entrance(narrow rectangle type). III -period used wooden chamber tomb covered by stone. IV-period used stone chamber stomb with horizontal entrance(rectangle type) and stone chamber tomb with corridor.

Especially stone chamber stomb with horizontal entrance(narrow rectangle type) is unusual because it wasn't additional burial. Also various construction techniques are used. There are Compartmentalized mound of tomb, distributing installations, circular burial protection stone, ditch enclosure and so on.

Excavated remains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Changnyeong type pottery spreads to the west Gyeongnam and downstream areas of Nakdong River. The ornaments and horse harness are influenced by Silla, some are made in Changnyeong. In addition some ornaments and horse harness are relateded Daegaya and Wa.

This material is an important resource for revealing ancient history and exchange history of Korea.

Key Words : The Gyo-dong and Songhyun-dong tombs, Changnyeong, mound tomb, construction technique, exchange

